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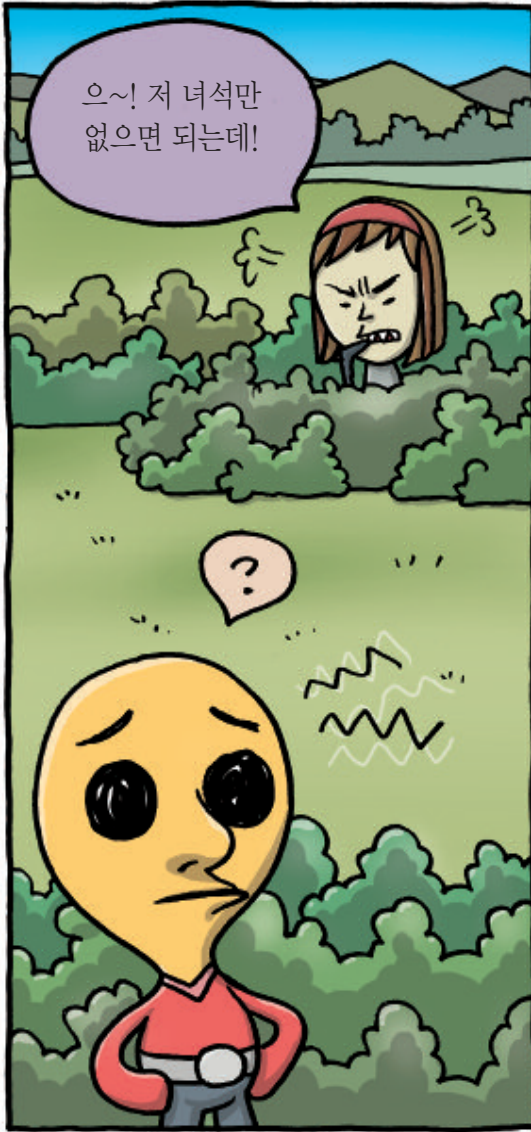
특명! SEASON. 2
KIST의 비밀을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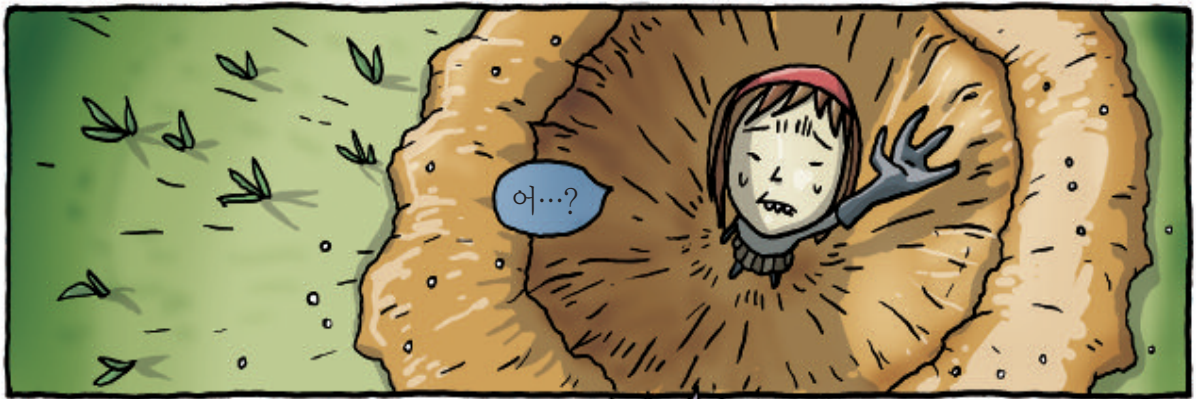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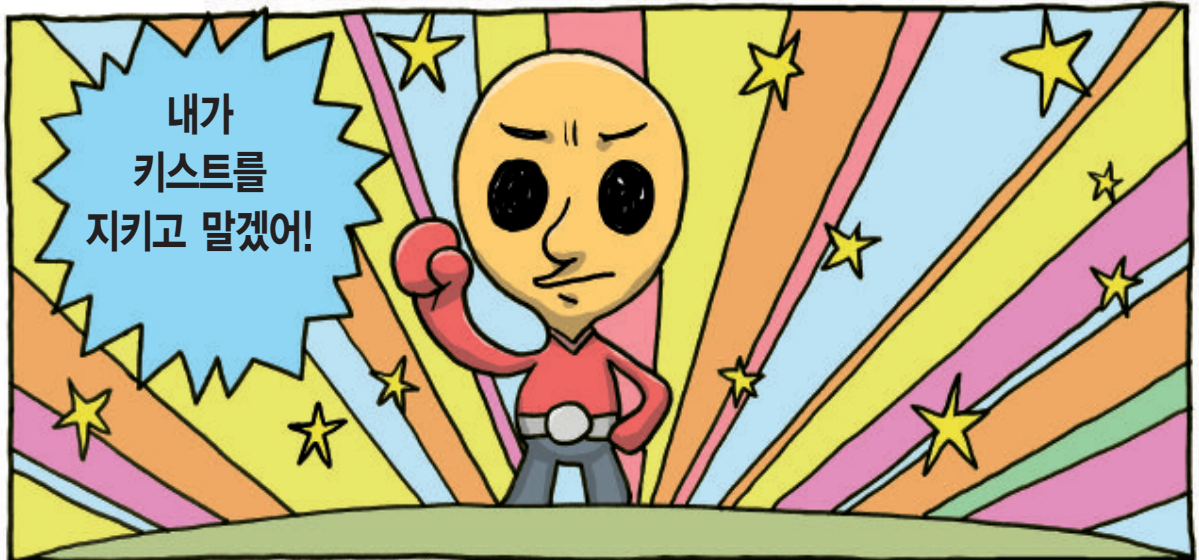
특명 4 피램의 날아가지 않는 기억
글 현수랑 그림 김준



지난 줄거리 : 검은별 군단 악당인 뻘아종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미인계에 속아 숨바꼭질 놀이나 하는 바보 스틸로, 게다가 KIST(키스트)의 박사님을 오히려 악당으로 오해하고 뒤쫓는다. 박사님을 따라가 지능형 반응 공간 기술을 체험하다가 뻘아종을 찾게 되지만 뻘아종은 다시 도망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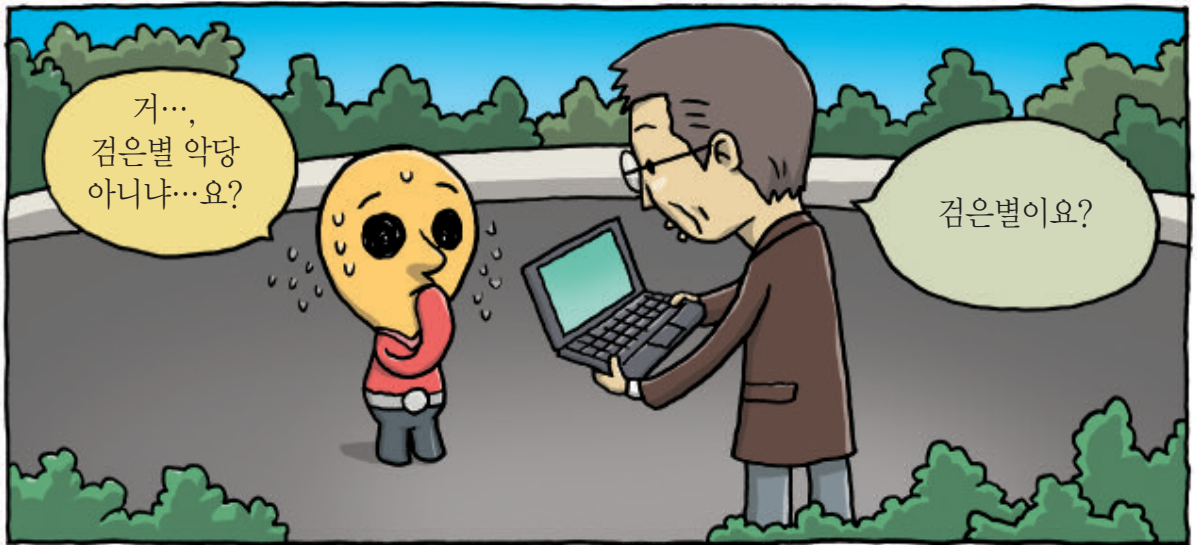




이 악당!
컴퓨터를 어디로
훔쳐 가는 거냐?

네...?

후!



저...,
검은별 악당
아니냐...요?

검은별이요?



키..., 컴퓨터를
훔쳐 가는 거
아..., 아닌가요?

이건 제
컴퓨터데요?

KIST(키스트) 나노소자연구센터
김성일 박사



■ 피램(PRAM)



램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공간을 말해요. 메모리라고도 부르지요.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디램(DRAM)을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른 대신 전원이 끊어지면 처리하던 데이터가 날아가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피램은 전원을 꺼도 처리하던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요. 피램은 '게르마늄 안티몬 텔루라이드($\text{Ge}_2\text{Sb}_2\text{Te}_5$)' 라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특성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전원이 꺼져도 물질이 변화된 상태가 사라지지 않아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KIST(키스트) 나노소자연구센터에서는 아직 개발 단계인 피램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2006년에 삼성에서 출시한 피램.



